

기아차, 올스타전 MVP 김하성에 'K5' 증정

KBO 올스타전 연계 마케팅

울산문수야구장에서 진행된 '2018 KBO 리그 올스타전'의 대미를 대한민국 대표 중형세단 '더 뉴 K5'가 장식했다. 기아차는 다양하고 색다른 마케팅으로 야구팬들에게 젊고 역동적인 자사 브랜드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기아차는 '2018 KBO 리그 올스타전' 연계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 14일 울산문수야구장에서 열린 '2018 KBO 리그 올스타전'에서 ▲시구자 에스코트 차량으로 '올 뉴 K3' 운영 ▲'미스터 올스타(MVP)'에게 '더 뉴 K5' 증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우선 기아차는 경기 시구자로 나선 강병철 전 감독을 위해 '올 뉴 K3'를 에스코트 차량으로 제공했다. 올 뉴 K3는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등 등급 최고 수준의 안전 사양과 15.2km/L의 경차급 연비 등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준중형 세단이다.



기아차 '더 뉴 K5' 차량과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 중인 김하성 선수의 모습.

/기아차

드림탑과 나눔탑으로 나뉘어 진행된 올스타전에서 3타수 2안타(2홈런) 4타점 3득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한 넥센 김하성 선수가 '미스터 올스타(MVP)'로 선정됐다. 기아차는 더 뉴 K5를 부상으로 수여했다. 기아차의 더 뉴 K5는 ▲음각 타입 세로바 라디에이터 그릴, 가로형 레이아웃 LED 안개등 등 진보된 디자

인 ▲국내 중형세단 최초로 적용된 고속도로 주행보조(HDA) 및 AI 기반 서버형 음성 인식 기술 ▲운전석·동승석 어드밴스드 에어백 등 우수한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

한편 기아차는 2012년부터 7년 연속 KBO 자동차부문 공식 후원사로 활동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국 코카콜라가 지난 14일 환경재단과 함께 '2018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4차 과정'을 진행했다.

/한국코카콜라

코카콜라-환경재단

어린이 그린리더십 "습지 체험해요"

한국 코카콜라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올해 국내 습지 체험 학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국 코카콜라는 지난 14일 환경재단과 함께 강원도 강릉시 경포가 시업습지 일대에서 '2018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4차 과정'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코카콜라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환경 교육 프로그램으로 습지 탐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습지의 중요성과 습지 보존 노력을 배우고, 나아가 물의 가치 및 소중함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경포 가시연습지는 과거 농경지로 개간되면서 한때 생태계가 파괴됐으나 지난 2009년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실시된 이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가시연이 반세기 만에 다시 복원됐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습지해설사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경포가 시업습지를 둘러보며 수생곤충 및 식물 탐사, 나뭇배 체험 등을 통해 온 몸으로 습지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또 다양한 환경 관련 퀴즈 및 미션을 수행하는 '에코 러닝맨'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보호에 대해 보다 재미있게 접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소감 나누기 및 기념품 전달을 끝으로 이날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박정재 한국 코카콜라 상무는 "그린리더십 과정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습지 탐사를 통해 물과 습지의 소중함을 깨닫고 환경의 중요성을 함께 전파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한국서부발전 농어촌 상생기금 70억 출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한국서부발전은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부발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전소 온배수 활용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지능형 스마트팜 구축, 태안 지역 초·중·고교생 학습 멘토링 사업 등에 70

억원을 출연한다. 또, 발전소 주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가 방학기간동안 지역에 거주하며, 학습·진로·정서 멘토링을 진행하는 '해피위피스쿨'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서부발전 김병숙 사장과 협력재단 김형호 사무총장(왼쪽 다섯번째부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늘의 운세

7월 16일 (음 6월 4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 좋다. 60년생 머리가 맑으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다. 72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말을 조심. 84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소 49년생 남동쪽으로 길을 나서면 행운이 있다. 61년생 변화가 있는 날이니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73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 85년생 작은 흠이라도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주의.

호랑이 50년생 의외의 조력자가 나타난다. 62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이 다스려라. 74년생 가족 간의 불화가 있을 수 있다. 86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나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한다.

토끼 51년생 어제의 동지가 적으로 바뀌니 영원한 것은 없다. 63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아 온다. 75년생 친구가 형제보다 낫다. 87년생 숨겨왔던 숨겨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날이다.

말 52년생 문서운이 있으니 거래를 해도 좋다. 64년생 오늘 준비해야 내일이 기다려지는 법이다. 76년생 부모님의 안부를 챙겨보라. 88년생 우물 속 개구리는 더 큰 하늘을 보지 못하고 도전하지 않는다.

뱀 53년생 상대의 단점을 건드리면 나에게 해가 되어 돌아온다. 65년생 격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운 날. 77년생 먹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89년생 행복한 가정이 나의 발전의 원동력을 잊지 말자.

말 54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남는 날. 66년생 자손에게 기쁜 일이 찾아오니 마음이 즐겁다. 78년생 심신이 고단하나 재물은 들어온다. 90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이 생기니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

양 55년생 소금장사 나서는 데 비 오는 격. 67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나는 날이다. 79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지 실망은 금물이다. 91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시비도 있을 수 있다.

원숭이 56년생 나이 든다는 것이 서글퍼지는 날이다. 68년생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야 만사가 편하다. 80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서 명예가 높아지는 날. 92년생 먼 곳에서 기쁜 소식이오니 고민이 해결된다.

닭 57년생 깊은 물에 고기가 모이는 법이니 야망을 갖자. 69년생 급할수록 돌아가고 서두르지 마라. 81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개가 필요한 날. 93년생 힘든 일을 부모님의 조언으로 해결하라.

개 58년생 성공이 지척인듯하나 마음만 바쁘다. 70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82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일을 처리. 94년생 구름 속의 태양을 의심하지 말고 노력을 하면 해결된다.

돼지 59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만큼 운이 좋은 날. 71년생 지나간 길에 아쉬움을 두지 마라. 83년생 마음먹은 대로 직진. 95년생 산도 좋고 물도 좋으나 편히 쉴 곳은 아니니 마음이 아프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2	4	
2			3	5		9		
			6	3				
	6	4				3	7	
	5	7			2		6	
				6		7	2	
8	2		5		6			
4			2	9	1			

							4	
		2	4				9	3
		4	6		3	7		
7	9		1					
	5		4			2		
				7		1		5
		3	8		1	6		
1		5			9	3		
7								

스도쿠 정답								
8	5	1	6	2	4	7	9	3
4	9	7	3	5	1	2	8	6
2	1	6	9	7	8	5	3	4
9	1	2	8	6	4	5	7	3
1	4	5	2	1	7	9	6	8
6	8	7	4	9	5	1	2	3
1	6	8	5	4	9	7	2	3
7	2	4	1	3	6	8	9	5
5	9	1	7	8	2	6	1	4
6	1	5	7	4	2	9	3	8
2	8	4	6	9	1	5	7	3
7	4	9	1	5	8	2	6	3
5	6	1	2	4	7	8	9	3
1	2	8	9	7	6	1	5	4
9	7	4	8	1	5	6	2	3
1	5	1	4	2	9	7	8	6
4	9	6	1	8	7	2	1	5
8	7	2	5	6	1	4	9	3

문제 제공= 보누스

김상회의 四季

도처에 만연한 갑질

대한민국 사회에 갑질 행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되었다. 사실 갑질이란 것이 무엇인가? 남보다 권력이나 재력이 좀 더 있다고 도에 지나친 언사는 물론 안하무인격 행태를 일삼는 것을 말하는 것이리라.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요구대로 되지 않는다고 무리한 요구를 일삼는 행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도에 지나친 언사 모두를 포함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기실 갑질의 형태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그 역사 또한 생각보다 오래되었을 것이다. 과거 전제주의 사회에서 흔히 귀족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살아온 양식 자체는 그야말로 갑질 그 자체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생각 때문이다. 지배층이 아니라면 경제적 혜택은 물론 재판권이나 각종 분야에서 상대적 자유가 없었다. 조선 사회만 하더라도 왕이나 왕가의 거처인 궁전이나 누각 등의 크기를 비록 재상이라 할지라도 그 크기를 능가할 수 없었음은 물론, 의복이나 의관의 크기와 색깔 역시 뛰어넘어서는 안됐던 것이다. 만약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이는 왕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궤양죄에 해당되어 모반의 뜻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을 정도이다. 이러한 의식은 이미 공자가 거주했던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있어왔던 개념이었다. 논어 중 어느 편인지 정확히 생각나진 않지만 제후의 의복 색과 화려함이 천자의 의복 색깔을 따라했다 하여 공자가 한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인간의 신분 에 귀천이 있다고 철칙 같이 믿던 시절에야 당연한 사고방식이었을 수도 있지만 각각의 인권이 동등하다는 만민 평등사상이 지배적인 현대의 눈으로 볼 때는 힘을 가진 자의 합리화일 뿐이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양에서는 재벌이나 정치인 등 사회적 권위와 능력을 가진 이들, 즉 상류층이라 불리는 이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지금도 당연한 필요 덕목이다. 평상시에는 평민들을 부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도 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가장 먼저 앞서서 출전수범하여 위험을 감수하며 나라를 지켰던 것이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의 당연한 처신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신분의 향유와 혜택에 비례하는 윤리적 의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주변에 만연한 갑질은 어떤 면에서는 재벌이나 권력자의 부당한 요구나 행태뿐만이 아니라 소시민적인 일상생활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친함을 빙자하여 친구나 동료들의 호의를 교묘하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 보여서다. 나 자신 역시 알게 모르게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